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10월 4일**

단번에 히9:1-12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베네쥬엘라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많이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가 너무 은혜로웠고 앞으로 이 말씀 운동에 깊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은혜로 적절한 통역자를 만날 수 있었고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와 늘 말씀을 나누는 3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고 그들의 교회도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운동에 전심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고 앞으로 귀중한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시대적인 복음을 알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없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간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고 정복하는 작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1. 단번에

1)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땅에는 기록이 없는 분이며 하늘에서 바로 내려오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설명합니다.
2) 8장은 그리스도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설명하고 주님이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 성전은 창조주이신 주님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12절) 이렇게 하여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더 이상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이 언약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24절)
4) 8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손으로 만들어진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으시고 제사장 역할도 그림자 성소에게는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주님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5) 26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권세 입니다.
6) 한번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분에 대한 모형입니다. 제사장도 모형, 대제사장도 모형, 성전도 모형, 제사도 모형 전부 모형이요 그림자 입니다.
7)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장막입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8) 요19:30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발견이 되

면 답이 됩니다. 영원한 답이 되고 무슨 일이나 문제나 상관 없이 다 답이 됩니다.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열쇠를 받았고 흔들리지도 않고 기다리며 지치지도 않습니다. 이미 정복한 것이며 이미 작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9) 주님은 더 이상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모형이면 참 것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성전도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끝이 없습니다.

10)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요 참 것이요 참 대제사장이시니까요. 그러므로 한 번으로 끝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고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가셨고(24)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을 내야 합니다. 어느 날 눈이 열리고 발견이 되면 안에 들어와 답이 되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답을 가진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2. 죽으신 이유

1)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길 외는 살아나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롬8: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피조물을 해방합니다.

2) 그리스도의 보혈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자는 해방을 누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의 권세는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을 깨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는 누구나 인생이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3)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정복합니다. 부활은 주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온 권세입니다. 비밀을 깨닫고 눈이 열리면 엄청난 약속이 발견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도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4) 답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움직입니다. 영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은 방법도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누림이요 기도요 고백이요 다시 한 번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답입니다. 깊이 24가 되어지고 영원한 완전 기도 제목 777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 뿐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상황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5) 응답이 지속으로 나타나고 계속 인생이 성장하고 멈추지 않고 문제는 역전되어 축복이 되고 정복이 되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6) 답을 찾고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답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열쇠를 가지고 모든 문을 다 여는 참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다음 세대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3시대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7) 반드시 이방인의 뜰이 일어서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치유 받는 뜰을 이룰 것이며 반드시 아이들에게 준비된 뜰을 물려 주므로 시대적인 복음 운동이 대를 이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